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제16회 동학농민 혁명대상 후보자 공모

정읍시가 평등과 자주의 승고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온 공로자를 찾아 예우하기 위해 '제16회 동학농민혁명대상' 후보자를 오는 3월 27일까지 추천받는다.

후보자 추천은 동학 관련 단체 및 사회단체장을 비롯해 유관 기관장, 학교장, 사학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는 정읍시청 동학유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을 이용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명예로운 상패와 함께 20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5월 9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제59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기념식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정읍시청 동학유산과 동학선안팀(☎ 063-539-692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빈집 정비사업 최대 400만원 지원

정읍시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400만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3월 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오랫동안 방치돼 지역 사회의 미관을 해치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폐기물 처리 비용을 보조하는 정책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0만원이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해당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서 제출 기한은 3월 6일까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

27억 예산 투입... 노후 저수지 7곳 보수·보강, 저수지 준설 7곳, 농업용 관정 개발

정읍시가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호우와 상습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올해 총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저수지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용수 확보를 위한 용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저수지 안전관리 및 시설 정비에 23억원을 투입해 철보면 외우제를 포함한 노후 저수지 7개소의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단순한 시설 개보수를 넘어 △저수지 예찰 활동 △제조 작업 등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병행해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상 이변에 따른 상습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4억 5000만원 규모의 용수개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핵심 사업인 저수지 준설(7개소)을 통해 저수 용량을 확보하여 갈수기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며 지표수가 부족한 지역에는 중형관정 6개소를 설치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원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가뭄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수리시설 정비를 통해 재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신속한 사업 집행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화수 시장은 "신속한 공사 발주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고품질 농작물 생산이 가능한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선운산농협,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23명 입국

고창군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욱)은 지난 23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성실 근로자로 선발된 23명이 입국했으며, 24일부터 고창군 농업 일선에서 본격적인 인력중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실근로자 입국은 고창군-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력중개사업의 신뢰탄을 쏘아 올리는 의미 있는 출발로, 선운산농협은 이를 통해 지역 농가의 인력 부족 해소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국한 23명의 캄보디아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존 근무 경험과 성실성이



검증된 인력으로, 선운산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중개사업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며, 즉시 투입 가능한 성실근로자의 입국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운산농협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에 적극 기여해 나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마실축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부안 축제 방향성 제시해 호평

부안군은 24일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서 축제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12회 부안마실축제는 해돋이마루 지방정원에서 열린 두번째 축제로 '5월의 선물, 가족여행 부안'이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대한민국 축제콘

텐츠 대상을 수상했다.

호평을 받은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부안의 13개 읍면의 특색을 살려 마실의 정체성을 보여준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 엄마·아빠들의 경연대회인 '마미스앤파파스 뮤지컬페스티벌', 부안의 특산물을 직접 구입해 조리해 먹는 '로컬푸드 팝퍼티', 어린이날을 맞아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 '해돋이

마실 페어리드', 축제 기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부안군 축제 캐릭터 '부안몬 프렌즈'가 각인된 순금 골드바를 증정한 '황금문을 선물합니다' 등의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선물했다.

한편 올해 열리는 제13회 부안마실축제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해돋이마루 지방정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개최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지자체 혁신평가 최고등급 획득

행안부 주관 '우수기관' 선정... 시민 중심 혁신 최우선 삼아

AI 기술 행정에 접목해 시민 편의 ↑... 10개 중 5개 분야 우수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혁신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개 평가군(광역·시·군·구)으로 구분해 혁신 역량, 혁신 성과, 국민 체감도 등 10개 지표를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행정 평가 중 하나다.

이번 평가에서 정읍시는 종합등급 '우수'를 획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끝목할 만한 성장세다. 2024년 '보통' 등급에 머물렀던 정읍시는 불과 1년 만에 '우수' 등급으로 최상위권에 안착하며 혁신 행정의 저력을 과시했다.

정읍시는 총 10개 평가 지표 중 △주민 소통·참여 강화 △민·관 협력 활성화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조직 문화 개선 및 행정 내부 효율화 △대표 혁신과제 등 5개 분야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 중심의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한편, 경직된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개선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해왔다.

특히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협력 모델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과제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 평가단은 "정읍시가 대부분의 지표에서 보통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기관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성과를 입증했다"고 평가 의견을 밝혔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직자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맞물려 만들어진 값진 결과"라며 "정읍시는 순위 상승에 안주하지 않고 AI 대전환(AI)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및 행정 내부 효율화 △대표 혁신과제 등 5개 분야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대한민국 대표 혁신 행정의 모범

행안부 지방정부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공공 웹 혁신 통해 주민 중심 스마트 행정 구현 호평

고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대한민국 대표 혁신 지방정부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전국 지방정부의 혁신 역량과 주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이번 평가에서 고창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고창군의 혁신 행정이 일시적인 성과를 넘어 조직의 핵심 역량으로 안정적으로 안착했음을 입증하는 결과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고창군은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행정 전 영역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혁신 행정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및 AI 대전환(AI) 기반 마린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존 10중에 달하던 계약 구비서류를 단 1종의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로 일원화해 불필요한 방문과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공공 웹 혁신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누리집 접근성을 높이는 등 주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행정 전 영역에서의 균형 있는 성과도 돋보였다. △혁신 활동 참여 및 성과 확산을 위해 타 지자체에 고품격 멘토링 활동에 앞장섰으며, △민·관 협력 및 시각시대 해소를 위해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우리동네 복지보안관 활동을 통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고창군-인천공항 고속버스 운행 및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군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이번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고창군수는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군민 행복을 위해 함께 달려온 전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고창군민의 차별화된 혁신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스마트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